

寒山詩와 北宋詩壇

李鮮熙*

<目 次>

1. 서론
2. 寒山 禪詩의 특징
 - 1) 禪詩의 전개 과정
 - 2) 寒山 禪詩의 기본 성격
3. 寒山詩와 北宋詩風
 - 1) 寒山詩의 북송 流傳
 - 2) 寒山詩와 송시 통속화 ‘以俗爲雅’
 - 3) 寒山詩와 송시 의론화 ‘以理入詩’
4. 결론

1. 서론

中國詩歌史에서 唐詩와 宋詩의 비교는 오랫동안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당송시의 비교연구는 대개 兩代 시인과 작품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통해 詩作의 양식과 기법 또는 소재 등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唐宋詩의 특징을 도출하여왔다. 이러한 연구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성과를 거두어 많은 부분에서 정론화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당송시의 계승과 차별화의 발생은 唐宋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모든 예술작품에는 기본적으로 작가정신이 투영되어 있듯이 문학작품 역시 작가의 의식세계가 투

* 培材大學校 專任講師

영되어 있어, 작품에는 작가의 시대정신과 또한 개인적으로 처했던 현실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의식세계가 반영되어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송시의 계승과 차별화에 대한 연구 역시 작품 중심의 접근 못지않게 역사문화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접근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방식은 당송시의 관계는 물론 중국역사상 가장 강력한 文治國家였던 송대가 詩作활동에 있어서는 당대에 비해 미흡했던 까닭 등에 대해서까지도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가 본고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王安石의 〈擬寒山拾得詩二十首〉에 대한 연구가 계기가 되었다. 북송의 재상이자 대시인이었던 왕안석이 말년에 한산시를 模作한 작품과 그 모작배경을 파악하던 중, 한산시에 대한 모작이 왕안석 뿐 아니라 송대 시단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송대 시단이 한산시에 대해 매우 주목하였음을 의미하고, 왕안석의 모작도 이러한 송대 시단의 조류와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擬寒山拾得詩二十首〉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인식을 위해서는 먼저 북송시단에서 한산시가 유행하게 된 과정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북송시단과 한산시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산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론이 분분하다. 다만 그의 시를 통해 추론하면, 청년기에는 세상을 흔들듯한 야망의 유생이었으나 좌절하고 산중에 은거하였으며, 중년이후 도교와 불교 등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유불도의 모든 사상체계를 섭렵하였던 시인이다¹⁾.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만 취급하였지만, 오대를 거쳐 송대에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반전하였다. 승려는 물론 문인들도 그의 시를 주목하고 애송하였으며 심지어는 模作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한산시가 돌연 송대에 들어와 주목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송대의 문화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송대 학술문화의 특징을 이루는 요인 중 하나가 성리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 寒山詩에는 도가사상과 관련된 시와, 또 불교 시, 그리고 儒生의 의식이 담겨진 시가 있지만, 그는 시중 유불도 어느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음으로서 도교나 유가는 물론 불교 경전 어디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그후 청대에 편찬된 《全唐詩》에서 佛敎詩로 분류되는데, 한산시 중 불교 관련 시가 가장 많지만, 그를 단순히 불교시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參閱 拙文 〈한산시에 보이는 한산자의 정신세계〉, 《인문논총》 제11-1집, 배재대인문과학연구소, 1997.

또한 성리학의 발전 이면에는 중국 학술사상 유학의 철학화, 불교의 중국화, 유불도의 합류라는 중요한 역사적 함의가 담겨 있다. 이로부터 종교적으로는 禪宗이 송대에 전성기를 이루고 문학에서는 詩와 禪이 결합된 禪詩가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시의 문학적 특징은 송시가 唐詩와 차별화된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다만 송대 선종이 唐代에서 개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시의 특징 또한 唐詩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송대 시인의 한산시에 대한 주목에 대한 문학사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송대 선시의 발전과정에는 한산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송대 한산시 모작에 대한 연구에 앞서 한산시와 송대 시단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송시의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한산시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송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한산시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한산자 선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산시가 송대 문단에서 주목받게 된 까닭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송시 발전과정에서 한산시가 미친 영향을 추론해나가 고자 한다.

2. 寒山 禪詩의 특징

1) 선시의 전개과정

선종은 불교의 전래 이후 중국의 전통사상과 결합되면서 형성된 중국화된 불교이다. 당대가 선종의 황금기였다면 송대에 이르면 토착화되어 더 이상 외래사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그로부터 선종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사상과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문학에 있어서는 禪과

詩가 결합된 禪詩가 크게 유행하여, 禪이라는 종교철학의 영역과 시라는 문학예술의 영역이 결합하여 새로운 문학세계의 지평을 열게 된다.

그러나 禪詩도 唐代에 개화되었으니, 즉 시가의 황금시대였던 唐代의 문화적 조류가 선승에게 유입되면서 禪을 시로 읊게 된 것이다. 본래 선종에서는 佛法은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고 以心傳心되는 것이라 하여 '不立文字'를 강조하였다. 이는 佛道가 규격화된 言文에 의해 한정되거나 구속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詩는 은유와 상징의 기법을 사용하고, 詩語 또한 고정되거나 불변의 개념이나 의미가 아니며, 또한 시인이 자신의 진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형식이라는 점에서, 선승들은 시라는 형식이 선종이 추구하는 불립문자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선종에서는 眞心이 드러나고 以心傳心되는 시를 좋은 시라고 보았다. 초기의 선시도 고정된 의미의 詩語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표현방식 또한 제각기 달랐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선시는 佛道나 禪理의 설명 또는 종교적 선전이 주목적이었다. 한 예로서 唐代 五祖禪師 弘忍이 지은 선시를 보면,

情을 두면 종자를 뿌리는 격이라, 因地에 도리어 과보가 나오는 법이요
情이 없으면 이미 종자조차 없나니, 本性도 또한 生滅도 없으리²⁾

윗 시를 보면,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고 五言詩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느껴지는 시적 이미지를 찾을 수 없고, 풋풋한 정감보다는 마치 독경하는 듯한 건조함이 느껴진다. 초기의 선시는 대체로 선승들에 의해 쓰여 지고, 시풍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성보다는 종교성이 강했다.

그러나 중당이후 禪僧 외에 문인들이 禪詩의 詩作에 참여하면서 선시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문인들의 선시도 기본적으로는 禪理 설과가 목적이었지만 禪趣를 표현하려는 작품이 많아지면서 종교성 못지않게 문학적 예술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종교시이면서 동시에 문학작품으로서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시가 출현하는데, 寒山詩가 그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한

2) 有情來下種, 因地果還生. 無情既無種, 無性亦無生.

산시 한수를 살펴보자.

앞 개울가에 나가 푸른 물에 나를 비추어보고
 혹은 바위주변으로 나아가 반석에 앉으니
 마음은 외로운 구름처럼 의지할 바 없거늘
 아득한 세상사는 찾아 무엇하리요.⁴⁾

이 시에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구름으로 묘사하고, 부질없는 세상사에서 벗어나 개울가나 바위 주변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禪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일면 매우 예술성 높은 山水詩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坐禪의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보듯이 한산시는 선시의 예술화를 이룬 선도적 작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시는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선승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불교 대중화와 함께 문인들도 선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인 선시의 등장은 종교시였던 선시의 예술성을 강화시키고 점차 시문학의 새로운 장르로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유불도를 넘나들며 사실상 亦儒亦僧이었던 한산자의 시가 선시 예술화의 전개 과정에서 상당히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寒山 禪詩의 기본 성격

《四庫全書總目》의 〈寒山子詩集〉提要를 보면 ‘佛語와 ‘菩薩語’라는 표현을 통해⁵⁾ 한산시를 기본적으로 불교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全唐詩》를 비롯하여 《宋代高僧傳》 등 한산자 관련 문헌들도 대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宋元學案》을 저술한 명말청초의 대학자 黃宗羲는 흔히 당대 선시의 교조로 불리우는 선승 皎然과 靈澈의 선시보다도 한산습득시아말로 선시의 본색이라고 주장하였다⁶⁾. 黃宗羲가 당대의 대표적 禪詩 작가로 불리던 皎然과 靈澈보다 寒

3) 黃永武, 〈寒山詩的巔峰境界〉, 《中國詩學》(사상편), 臺灣: 巨流圖書公司, 1979, pp.237-250.

4) 我向前溪照碧流, 或向岩邊坐盤石. 心似孤雲無所依, 悠悠世事何須覓.

5) 《四庫全書總目》, 卷149, 〈寒山子詩集〉提要.

6) “寒山詩村野屋壁所抄之物, 豈可與皎然, 靈澈較其笙簧? 然而皎, 靈一生學問, 不墮向天台炙手, 則知飾聲成文, 雕音作辭者, 非禪宗本色也.” 黃宗羲, 《南雷文約》, 卷四, 參閱, 彭多 〈中國唐代禪宗詩歌的類型〉,

山拾得의 詩가 선시의 분류라는 주장은 상당히 의외의 주장으로 의미심장한 함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宋元시대의 학술사를 정리한 황종희의 이같은 주장은 단순히 한산시에 대한 높은 평가의 의미를 넘어, 한산시와 송대시단의 관계 차원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禪宗에서는 淨心이 바로 佛心이라는 '頓悟成佛'의 기치아래 不立文字에 의한 道의 진과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禪詩는 당연히 문자적 修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眞心이 묻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황종희가 보기에 우선 皎然과 靈澈은 일생동안 산중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수양하였던 관계로 내면적이든 습관적이든 저절로 문자적 雕琢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들이 형상화한 이미지는 진정한 禪境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황종희가 皎然·靈澈을 唐代 선시의 교조로서 인식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禪詩의 문학정신이 寒山과 拾得시에서 계승되고 있어 이들이 禪詩의 분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시의 소재를 비롯하여 詩語와 詩風,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이미지의 구축이야말로 선시의 분류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과격적이고 자유로운 서술방식이 송시의 중요한 특징이 형성된 이면에는 선시의 문학적 특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황종희는 송시의 특징을 형성시킨 연원이 한산시라는 사실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황종희의 이러한 주장은 唐代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한산시가 송대 시단에서 주목받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황종희가 언급한 禪詩 本流로서의 寒山詩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산시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사람사는 곳곳에 자신의 심정과 주장을 솔직담백하게 시의 형식을 빌어 서술해놓은 시이다. 화려한 修辭는 없지만 편안하고 참신한 느낌을 주며, 쉽고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어 독자로 하여금 성찰하게끔 한다. 《四庫全書總目》의 〈한산자시집〉提要에서는 한산시에 대해 工語, 率語, 莊語, 諧語, 儒生語, 佛語와 菩薩語의 詩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를 풀이하면 한산시는 문장의 뛰어난 技巧性, 쉽고 편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2卷 第2期, 2001. 6, p.83.

7) 《四庫全書總目》 卷149, 〈寒山子詩集〉提要.

敏捷性, 논리 전개의 嚴正性, 표현의 諧謔性, 그리고 유교와 불교 등 사상의 다양성, 중생을 제도하려는 계몽성을 갖추고 있는 詩라는 의미로서, 한산시의 특징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산자 말년에 天台山 國淸寺에서 기거하였던 관계로 불교계에서는 詩僧으로 부르지만, 《四庫全書總目》에 언급된 바와 같이 佛語와 菩薩語의 관점에서만 한산시를 평가한다면, 이는 단면적 평가가 될 것이다⁸⁾. 한산시에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은 비종교시도 적지 않지만, 절반에 이르는 약 150여수가 불교 관련 詩임에는 틀림없다.

한산자의 불교시는 禪宗을 배경으로 쓰여진 禪詩가 많은데, 특히 민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쓴 偈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⁹⁾. 계송은 四言 六言 또는 七言 등 중국 시의 기본 형식을 갖추면서도 押韻이나 韻律, 節奏 등 중국 전통시의 다른 격식은 과감하게 배격한 자유로운 시풍의 불교시이다. 이같은 자유로운 시풍은 중국 詩壇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唐代에는 승려 외에 문인들도 偈頌 형식의 詩作을 활발하게 전개하는데, 한산자 역시 많은 불교시를 남겼다. 한산시에는 당시 자신의 시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릇 내 시를 읽는 그대들이여,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하라.
 탐욕은 날로 청렴해 지고, 아침은 때를 따라 바르게 되리라.
 몰아드는 악업을 없애고, 부처님께 돌아가 眞性을 받아라.
 오늘 이 생에서 부처 몸 이루기를, 律舍처럼 급히 서둘러라. 10)
 그리고 이러한 소회는 습득의 계송에서 보다 더 드러나고 있다.

8) 그러나 한산자의 사상적 행적을 살펴보면, 출가하기 전에는 분명히 유생으로서의 유교적 사상의 소유자였고, 은거한 이후에는 한때 도가사상에 몰입하였고, 다시 한때는 불교에 몰입하였다. 따라서 그는 유불도를 모두 섭렵하고 중국적으로는 유불도를 넘나드는 사상적 행보를 보이며 어느 사상이나 종교로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청사에서의 기거는 그가 말년 선종사상에 심취하였음을 의미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삭발하지 않았으며 승려가 되지는 않았다. 參閱, 拙著, 《寒山其人及其詩研究》, 臺灣: 私立東吳大學 박사학위논문, 1992.

9) 偈頌은 본래 梵語 Gatha에서 유래되었다. 이를 한자로 음역한 偈와 또 이를 의역한 '頌'을 모두 사용하면서 계송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參閱, 《大藏經》 51冊, pp.882-883. 본래 偈頌은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세속에서 君王에 대한 찬양의 세태를 불교에서 부처 찬양으로 응용한 것이다.

10) 凡讀我詩者, 心中須處淨. 慳貪繼日廉, 詔曲登時正. 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

모든 부처님이 경을 남긴 것은, 다만 사람을 교화하기 어렵기 때문.
 오직 지혜롭고 어리석은 이 뿐 아니라, 사람마다 마음에 계교를 가졌네.
 업을 지은 것이 태산처럼 크거늘, 어찌 근심 걱정 품지 않으랴.
 자세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밤낮 간사하고 거짓을 생각하네.¹¹⁾

윗 시에서 보듯이 그들은 菩薩이나 攄淨, 驅遣, 惡業, 眞性, 佛身, 藏經 등 불교 및 禪의 개념에 대해 각종 비유와 쉬운 말을 사용하여 禪的 解脫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형식에 있어서도 비록 六言詩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운율 등 중국시의 전통적 詩律 등은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풍격이 엿보인다. 한산자도 이러한 통속적 시풍이 의도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 내 시를 비웃지만, 내 시는 고아하고 법에 맞는다.
 정현의 주석도 번거롭게 할 것 없고, 모장의 해설도 쓸모가 없네.
 알아주는 이 없다고 탓하지 않나니, 다만 제대로 아는 자가 적을 뿐이거늘.
 만약 공상을 찾게 한다면, 내 병은 영원히 그칠 때 없으리라.
 어쩌다가 진실로 눈 밝은 사람 만나면, 즉시 천하에 퍼지리라.¹²⁾

그러면서 자신의 시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 시를 읽고, 알지도 못하고 비웃고 비방한다.
 중간 선비는 내 시를 읽고, 생각한 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가장 어진 사람은 내 시를 읽고, 반기며 만면에 웃음 지리라.
 양수는 어린 여자를 보자, 이내 妙자를 알았느니라.¹³⁾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偈頌의 형식과 더불어 문장은 白話體를 사용하고, 소재는 日常生活에서 찾았다.

계송에 대해서 당대 문인들은 “의중을 드러내어 人間 世事를 논하고, 통속적인 듯 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¹⁴⁾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계송의 특징을 소재

11) 諸佛留藏經, 只爲人難化. 不唯賢與愚, 個個心構架. 造業大如山, 豈解褻癡白. 那肯細尋思, 日夜數千詐.

12) 有人笑我詩, 我詩合典雅. 不煩鄭氏箋, 豈用毛公解. 不恨會人稀, 只爲知者寡. 若譏修宮商, 余病莫能罷. 忽遇明眼人, 卽自流天下.

13) 下愚讀我詩, 不解却嘲訕. 中庸讀我詩, 思量云甚要. 上賢讀我詩, 把著滿面笑. 楊修見幼婦, 一覽便知妙.

14) 游潛, 《夢蕉詩話》.

의 세속성, 詩語와 내용의 통속성, 심오한 사상과 분명한 메시지 제시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윗 시에서도 보다시피 이러한 특성은 한산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내용과 소재 모두 현실에서 찾고, 화려한 수사를 생략한 채 의사 전달의 효용성을 위해 백화문을 사용하였다. 이점이 바로 황중희가 한산시를 선시의 본색으로 규정한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학적 시도가 북송에 이르러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산시와 송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한산시가 송대 시단에서 주목받게 된 원인은 송대시단이 추구한 문학적 가치가 한산시에서 발견되기 때문일 것이다. 송말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송시의 3대 특징으로 ‘以文字爲詩’, ‘以議論爲詩’, ‘以才學爲詩’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以文字爲詩’는 송시의 산문화 또는 세속화를 의미하고, ‘以議論爲詩’는 송시 의론화를, 그리고 ‘以才學爲詩’는 송시의 典故性을 가리킨다. 그런데 한산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고, 통속적이고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생동성을 높이고, 또한 詩意의 분명한 제시를 추구하였던 점은 嚴羽가 제시한 송시의 3대 특징 중 ‘시의 통속화’와 ‘시의 의론화’와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산시는 통속시와 의론시에 관한 후세의 典範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송시의 의론화와 통속화 과정을 중심으로 송시와 한산시와의 관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3. 寒山詩와 北宋詩風

1) 寒山詩의 北宋 流傳

송대 黃山谷은 한산시를 특별히 좋아하여 늘 붓글씨로 쓰고 애송하곤 하였다¹⁵⁾. 심지어 자신을 한산자의 後身이라고까지 표현하는가하면 심지어 손자들이

15) 《石門文字禪》卷二十七, 〈又詩〉“山谷嘗喜書之....” 또한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발행한 《古宮書法》第十輯下, pp.18-24에도 한산시 두 수가 실려 있다. “我見黃河水, 凡經几度清. 水流如急箭,

한산시를 보는 것도 좋아할 정도였다¹⁶⁾. 황산곡의 한산시에 대한 존중은 황산곡과 晦堂 寶覺禪師와의 대화에서 그 일단이 엿보인다. 여기서 황산곡은 “다시 10년 더 공부하고 글을 쓰면 혹시 陶淵明과 비교될지는 모르겠으나, 한산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것¹⁷⁾”이라며 한산시를 격찬하고 있다. 회당이 한산시로 和韻해줄 것을 부탁하자 황산곡은 “내가 감히 어찌 함부로 和韻할 수 있겠는가. 넉넉히 잡아 한 평생 혹은 다음 생에서까지 시를 쓴다해도 杜詩의 경지에 이르기 어려울진데, 하물며 한산자라니?¹⁸⁾”라고 답하며 한산시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智人이 한산시를 보노라면 역시 먹고 잘 겨를도 없을 것¹⁹⁾”이라며 한산시에 매료되면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빠져들게 됨을 고백하고 있다. 황산곡의 이러한 추앙은 비단 산곡만의 개인적 선호가 아닌 송대시단의 보편적 현상임은 왕안석을 비롯하여 한산시 의작이 송대의 여러 시인들에 의해 마치 유행처럼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한산시가 이처럼 북송에 유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산시의 북송 流傳 과정에는 晚唐 曹洞宗의 禪僧 曹山本寂이 편찬한 《注對寒山子詩》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對寒山子詩》는 실전되어 그 내용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출판 이후 선종 佛舍에서 크게 유행하여²⁰⁾ 마침내

人世若浮萍。痴屬根本業，無明煩惱坑。輪回几許劫，只爲造迷盲。” “寒山出此語，夏似顛狂漢。有事對面說，所以足人怨。心眞出語直，直心無背面。臨死度奈河，誰是嚙羅漢。冥冥泉台路，被業相拘絆。”

16) “前身寒山子，後身黃魯直。頗豐俗人惱，思欲入石壁。”山谷集(別集卷二)。황산곡은 자신을 한산자의 後身으로서 마음으로 것처럼 “入石壁”하고자 했다. 그 밖에 한산자에 관한 문장은 산곡집 여러군데에서 보인다. 한산시를 읽는 자손에 대한 칭찬은山谷集, 外集卷九, 《書王孝子孫寒山詩後》에서는 “東川孝子耳目聰明,……觀寒山之詩,亦不暇寢飯矣..”라고 하였다. 또한山谷集, 別集十二, 《跋寒山詩贈王正仲》에서는 “此皆古人沃衆生業火之具,余聞王正仲,閉關不交朝市之士,其子鑄,參禪學道,不樂火宅之樂,因余姪穰求書,故書遺之.” 즉 한산시를 “皆古人沃衆生業火之具”로 평하고 있다. 그밖에 《再答并簡康國兄弟四首》에서는 한산을 “妙舌寒山一居士”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17) 관련내용을 보면 “昔寶覺禪師,嘗命太史山谷道人和寒山詩,山谷諾之.及淹旬不得一辭.後見寶覺曰:更贖書作文十年,或可比陶淵明,若寒山子者,雖再世亦莫能及.”《編年通論》第二十卷,白隱禪師著,《寒山詩闡提紀聞》,魏子雲,《寒山識小錄》,《中國詩季刊》4卷5期,p.21에서 재인용.

18) “晦堂云:庭堅今以詩律鳴天下也,爲寒山詩者,廣韻得和否?魯直答云:杜少陵一覽寒山詩結舌耳,吾今歲敢容易可和韻哉!直饒雖一生二生,而作詩吟,難到老杜境界,矧防寒山詩哉!” 위와 같음.

19) “有性智者,觀寒山之詩,亦不暇寢飯矣.”黃庭堅《山谷集》外集,卷九,《書王孝子孫寒山詩後》.

20) 《宋高僧傳》卷十二,《梁撫州曹山本寂》云,“復注《對寒山子詩》,流行萬內.蓋以寂素修學業之優也,文辭迥麗,號富有法才焉.”《大藏經》第五十冊,p.786.

는 한산시가 선종의 새로운 경전처럼 선승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송대에까지 지속되어 禪舍마다 한산자 열풍이 불었는데, 당시 한산시는 송대 선승들에게 頓悟參禪의 도구로서 운용되기도 하고, 또는 설법에 임하는 禪師들의 법어로 운용되기까지 하였다²¹⁾.

이러한 禪舍에서의 한산시 열풍은 결국 송대 문인사회로까지 번져 앞서 언급한 황산곡은 물론, 蘇軾 王安石 등 북송 문인들에게서 큰 반향이 나타나 마침내 시단에서도 한산시열풍이 나타났다. 이러한 열풍은 남송으로까지 이어져 朱熹는 한산시에 대해 어느 시인도 이르기 힘든 경지라고 평가하였고²²⁾, 劉克莊은 한산시 수십수는 肺腑에까지 흘러들어갈 정도이며 작품 하나하나가 정교한 장인에 의해 재단되고 훌륭한 대장장이에 의해 주조된 것 같으며 극찬하였다²³⁾. 이외에 여러 문인들도 한산시를 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²⁴⁾, 송대 문인의 이같은 평가는 송대 문단에서의 한산시 열풍을 반영한다.

송대 한산시 열풍이 선승에서 문인사대부 사회로 流傳된 배경에는 단순히 선종의 확산이라는 단편적 시각보다는 유불도의 합류와 각개약진이라는 송대 사상계의 변화, 그리고 선승이 아니면서 많은 선시를 남긴 한산자 개인의 특수성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대에는 선종의 유행으로 선승과 문인사대부들의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 결과 송대사회에는 禪僧의 文士化와 文人的 禪學化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승은 문학적 우아함을 선호하고 詩作활동을 좋아하는 詩僧이 출현하고, 문인은 禪에 대한 담론을 좋아하고 세속화된 禪趣와 禪理가 농후한 선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송대 문인은 정신적으로는 고아함을 추구하였지만, 실제 생활은 당대에 비해 세속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禪적 담론을 선호할 뿐 종교적 차원의 활동에는 거리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들 문인의 선취시나 선리

21) 예를 들면 禪師 天鉢重元은 한산시 중 “卽慕參玄”을 대중들에게 法語로 제시하였고, 靈隱惠淳禪師는 한산시의 “吾心似秋月”를 인용하여 법어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종경록》 《碧巖錄》에는 한산사에서 인용된 구절이 꽤 있다. 參閱, 張伯偉, 《寒山詩與禪宗》, 《禪與詩學》, pp. 302-306.

22) “熬有好處, 詩人未易到此”, 朱子, 《朱子語類》, 卷一四〇.

23) “余每謂寒山子何嘗學爲詩, 而詩之流出於肺腑者數十首, 一一如巧匠斫, 良冶所鑄.” 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卷九十八, 〈勿失集序〉.

24) 許頴, 《彥周詩話》, 洪邁, 《容齋隨筆》, 王應麟, 《困學紀聞》 등에도 한산시에 대한 평가가 있다.

시에도 노골적인 종교색이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산시와 매우 상통하다. 한산시에 종교 차원의 형상화보다는 月 泉 青天 蓮花 寒巖 등의 자연의 형상을 이용한 선취시가 많았던 것도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별들이 펼쳐진 깊은 밤이거늘, 바윗가 비추는 외로운 달 기울지 않았네.
둥근 광명은 이지러짐 없는데, 푸른 하늘에 걸려있음이 내 마음 이여라.²⁵⁾

너럭바위에 올라앉으면, 개울 물 차갑고 시원하다.
고요히 둘러보면 못내 아름다운데, 바위 골짜기에는 몽롱한 안개 헤매인다.
편안하고 호젓하게 쉬는 곳, 해는 비스듬이 나무그림자 낮아졌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라보니,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네.²⁶⁾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끝이 없구나.
홀로 앉으니 아는 사람 없고, 외로운 달은 찬 샘물을 비추고 있다.
샘물에는 달이 없나니, 달은 본래 저 하늘에 있었다.
이 노래 한 곡조 불러 보면, 결국 이 노래가 禪이 아니겠는가.²⁷⁾

이처럼 산수자연의 형상화를 통해 높은 경지의 仙境이 표출된 寒山詩가 문인 사대부들에 의해 주목받은 것은 종교색은 농후하지 않으면서 선리와 선취를 선호했던 송대 문인들의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랜 은거와 말년의 國淸寺 起居에도 불구하고 끝내 탁발하지 않고 隱士로서 선시를 남긴 한산자 개인의 인생역정은 세속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아한 정취를 추구했던 송대 문인에게는 경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한산자의 山水詩 같은 선시의 詩作방식이 훗날 송대 선시의 중요한 특징임을 감안할 때, 송대 문인사회에서의 한산시열풍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산시가 송시에 미친 영향 또한 적지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송대의 한산시 열풍은 단순히 선종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문화환경의 형성이

25) 衆星羅列夜明深, 巖点孤燈月未沈. 圓滿光華不磨臺, 挂在青天是我心.

26) 盤陀石上坐, 谿澗谷淒淒. 靜甯偏嘉麗, 虛岩蒙霧迷. 恬然憩歇處, 日斜襟袂低. 我自觀心地, 蓮花出於泥.

27) 高高峰頂上, 四顧極無邊. 獨坐無人知, 孤月照寒泉. 泉中且無月, 月自在青天. 吟此一曲歌, 歌終不是禪.

라는 차원을 넘어 송시의 특징인 통속화와 의론화 및 산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⁸⁾.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왕안석을 비롯하여 여러 문인들이 단순히 한산시의 애송이라는 단계를 넘어, 마침내 한산시를 의작하는 풍조까지 나타났다. 한산시의 송대 流傳은 송대 시단으로 하여금 유가문화의 문자적 속박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시어로서 사용이 금기시되어온 속어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며, 아울러 규격화된 詩體로부터도 해방됨으로서 송시의 창조적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寒山詩와 宋詩 通俗化-‘以俗爲雅’

송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以俗爲雅’라는 점에 별 이론이 없을 것 같다. ‘以俗爲雅’는 소재의 세속화와 시어의 통속화를 의미한다. 송대 시단에서 적극적으로 ‘以俗爲雅’를 제기한 인물은 蘇軾과 黃庭堅으로, 이들은 본래 ‘옛 것을 새롭게(以故爲新)’라는 기초위에서 ‘以俗爲雅’를 제기하였다²⁹⁾. 그러나 以故爲新이 오랫동안 축적된 예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창조를 추구한 것이라면, 以俗爲雅는 기본적으로 통속시의 예술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황정견은 “詩는 矢다, 위에 있으면 詩이고, 아래 있으면 矢이다”³⁰⁾라며 세속적 소재를 대상으로 高雅한 창작을 주장하였다.

宋代 이전의 중국 시단에서는 대체로 詩에 속어의 사용이 금기시 되어 소수의 문인을 제외하고는 시에 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 이어져왔다³¹⁾. 그러나 송대에 이르면 이러한 전통이 무너져 북송 후반에 이르면 俗語의 詩語 사용이 활발하였다. 이에 대해 王琪는 공개적으로 “시인은 속어 사용을 망설일 것이 아니라 더욱

28) 孫昌武, 《禪思與詩情》, 第八章〈寒山詩與禪〉, 中華書局, 2006.

29) 蘇軾은 “詩須要有爲而後作, 當以故爲新, 以俗爲雅”, 《東坡志林》, 卷九.

30) 黃庭堅, 〈題意可詩後〉, 《山谷集》卷二十六.

31) 이러한 문학전통으로 唐代 劉禹錫은 重陽節에 시를 쓸 때 감히 ‘醜’자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儒家六經에는 이 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宋祈는 이런 劉禹錫에 대해 ‘虛負詩中一代豪’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參閱, 唐書旬, 《劉賓客嘉話錄》 臺北 商務印書館影印文淵閣四庫全書本, 1986. 또한 宋祈, 《經文集》 卷二十四, 〈九日食糕〉 武英殿聚珍叢書集成初編本.

사용하도록 연마해야 한다”³²⁾ 고 하는가 하면, 蘇軾은 더 나아가 “길거리와 시장 바닥의 말도 모두 시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람들이 잘 용해시켜 들어야 한다”³³⁾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蘇軾은 ‘以俗爲雅’의 기치아래 대담하게 자신의 시에 속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蘇軾의 시 發廣州에 보이는 “三杯軟飽後，一枕黑恬余”³⁴⁾중 軟飽는 飲酒, 黑恬는 熟眠을 의미하는 속어이다. 이러한 속어의 사용은 黃庭堅의 시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예를 들면 乞猫 중 “聞道狸奴將數子，買魚穿柳聘銜蟬”³⁵⁾중 銜蟬는 고양이를 가리키는 속어이다. 蘇軾과 黃庭堅의 북송 시단에서의 위상으로 볼 때 이러한 俗語入詩는 북송시단의 풍조로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송대의 俗語入詩 현상에 대해 북송 말 江西詩派의 韓駒는 “옛사람들은 方言을 많이 사용하여 시를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禪語를 계속 사용하여 시를 쓴다. 이는 대체로 진부함을 싫어하고 새롭게 하려는 것을 좋아한 까닭”³⁶⁾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俗語入詩의 풍조가 일어난 까닭은 북송시단이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기 때문이고, 또 송대 시단이 추구한 새로운 시도는 바로 禪語의 사용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속어의 원천이 되는 禪語의 시어 사용은 禪宗의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선종의 확산으로 문인들이 선종의 典籍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 전적이 그들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禪宗의 典籍은 불교 대중화 차원에서 儒家 經典과 다른 口語體의 白話文으로 쓰여지고, 또한 ‘眞俗不二’의 추구에 따라 많은 속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송대 문인은 그들이 접했던 禪宗의 典籍을 떠올리며 과감하게 자신의 작품에 속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문인들은 劉禹錫처럼 속어라는 이유로 詩文에 감히 ‘糕’자를 쓰지 못하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³⁷⁾. 그리고 禪語와 俗語는 언어의 성격상 공통점이 있어 시인들의 詩意 전달에도 편리하였다.

‘以俗爲雅’라는 송시 통속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송대 문인들이 새로운 詩作

32) 蔡條, 《西清詩話》, 胡子《苕溪漁隱叢話》, 前集, 卷二十六, 人民文學出版社, 1984.

33) “街談市語, 皆可入試, 但要人融化耳” 參閱, 周紫芝, 《竹坡詩話》, 歷代詩話本, 北京中華書局,

34) 蘇軾, 《蘇軾詩集》, 卷三十八.

35) 黃庭堅, 《山谷外集》卷七, 《黃山谷詩集注》, 中華書局, 2003.

36) “古人作詩多用方言, 今人作詩復用禪語, 蓋是厭塵舊而欲新好也”. 魏慶之, 《詩人玉屑》卷六, 〈室中語〉에서 인용, 臺灣商務印書館, 1980, p.112.

37) 註32와 같음.

의 典範으로 王梵志와 寒山子 및 拾得의 詩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산자와 왕범지는 생존시기, 출신배경, 거주지역등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시풍은 유사점 못지않게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³⁸⁾, 이들의 시는 모두 송대 문인들의 典範으로서 애송되는데, 그중에서도 寒山詩가 가장 주목받는다³⁹⁾. 이는 송대 시단이 추구했던 문학의 방향성이 한산시와 가장 근접했음을 시사한다. 《太平廣記》가 한산시의 主旨를 ‘警勵流俗’으로 규정⁴⁰⁾한 것처럼 통속화는 한산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처럼 한산시가 儻頌의 시풍을 추구하고 속어를 사용하였음에도 소박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었던 점은 송대 시단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한산자 본인도 이러한 詩作 方式이 의도적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왕 수재가 있는데, 내 시가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웃는다.
蜂腰도 알지 못하고, 또 鶴膝도 알지 못하며,
平仄도 알지 못해 압운도 못하니, 말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고.
나는 너의 시가 가소롭나니, 마치 장님이 해를 노래하는 것 같구나.⁴¹⁾

위의 시에서도 보다시피, 한산자는 자신의 시가 사대부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시를 지금 새로운 시도라고 주장하고, 기존 문인들의 시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웃고 있다. 이처럼 한

38) 寒山子가 생존했던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이 분분하나 중당이후의 인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王梵志는 隨末唐初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왕범지는 본래 빈민출신이었지만, 한산자는 서생출신으로 과거에 실패하여 은거하였다. 그리고 주로 거주했던 지역도 왕범지는 북방, 한산자는 남방이었던 까닭에 문화적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시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두사람은 經典등에 구애됨이 없이 속어를 사용하여 人情과 世態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俗’이라 할 수 있다. 參閱, 陸永峰, 〈王梵志詩與寒山詩比較研究〉, 《四川大學學報》第1期, 1999.

39) 徐立新, 〈寒山禪韻的思想及流傳〉《台州學院學報》第26卷, 第2期, 2004, pp. 15-16. 宋代에서의 寒山詩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다만 개략적인 몇 줄의 언급 외에 한산시와 송시의 관계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參閱, 錢學烈, 〈寒山詩的流傳與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8. 3.

40) “凡三百餘首, 多迷山林幽隱之興, 或譏調時態, 能警勵流俗.” 《太平廣記》, 卷五十五, 〈寒山子〉條에 〈仙傳拾遺〉를 인용함.

41) 有個王秀才, 笑我詩多失. 云不識蜂腰, 仍不會鶴膝. 平仄不解壓, 凡言取次出. 我笑你作詩, 如盲徒永日.

산시가 추구한 새로운 시도는 진부함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추구했던 송대 시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시에서의 속어 사용은 禪典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한산자의 통속시는 선승의 일반적 선시와는 달리 종교문학의 울타리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민중의 세속적 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속어나 불교용어 등의 다양한 시어를 사용하여 詩意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농후한 종교색을 지양하고 평이한 내용을 추구하였다. 한산자의 통속시에서 종교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진 시를 보면:

돼지는 죽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은 죽은 돼지 창자를 먹는다.
 돼지는 송장 냄새 꺼리지 않고, 사람은 돼지 냄새가 좋다고 한다.
 돼지가 죽으면 물에 던지고, 사람이 죽으면 흙속에 파묻나니.
 사람과 돼지 서로 먹지 않으면, 끓는 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리.⁴²⁾

홀얼거리며 신이 나서 魚肉을 사서, 메고 돌아가 처자에게 먹인다.
 어찌 다른 것의 목숨을 죽여가며, 장래 네 목숨 만을 살리려하는가.
 이것은 천당의 인연이 아니요, 오직 지옥 길의 찌꺼기일 뿐.
 촌 늙은이 깨어진 절구를 달래는 듯, 비로소 도리가 아님을 알았노라.⁴³⁾

내 동쪽 집 처녀를 보니, 나이는 열여덟.
 서쪽 집 찾아와 결혼시켜 부부로 살게 하자고 묻는다.
 양을 삶고 온갖 생명들 볶고 지지고, 머리를 모아 음살계를 범하나니.
 즐거움에 겨워 희희낙락하다가, 눈물 흘려 울면서 그 값을 받으리라.⁴⁴⁾

위의 시는 모두 殺生을 주제로, 시마다 啖 嘖嘖 徐六 呵呵 등 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적 묘사를 극대화시킨 통속시이다. 3수의 詩意는 모두 불교의 살생에 대한 권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내용과 표현은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시는 불교의 계율을 그대로 표현하고 불교를 내세우려는 종교시의 성격이

42) 猪吃死人肉, 人吃死猪腸. 猪不嫌人臭, 人反道猪香. 猪死抛水内, 人死掘土藏. 彼此莫相啖, 蓮花生沸湯.

43) 啖啖買魚肉, 擔歸喂妻子. 何須殺他命, 將來活汝已. 此非天堂緣, 純是地獄宰. 徐六語破誰, 始知沒道理.

44) 我見東家女, 年可有十八. 西舍竟來問, 願媿夫妻活. 烹羊煮衆命, 聚頭伴殺. 含笑樂呵呵, 啼哭受殃扶.

농후하다. 둘째 시는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해져온 수많은 일상적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천당과 지옥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담론 전개의 도구로서 활용할 뿐, 佛理나 禪理를 추구한다는 느낌은 미미하게 느껴진다. 셋째 시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잔치와 살생의 불가피한 관계와 흥겨움의 이면에는 희생과 殺生이 있다는 인생사의 양면성을 차원높게 표현하고 있다. 淫殺 등 불교용어가 보이지만, 종교적 개념보다는 일반적 용어로 느껴짐으로서 종교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둘째 시와 셋째 시 모두 비록 종교적 메시지가 담겨있지만, 결코 불교 찬양시라기 보다는 인생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표현한 수준 높은 통속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송대 사대부가 儒佛의 겸용이라는 송대의 사상적 배경에서 선종을 선호하고 선취와 선리에 대한 담론을 좋아하였지만, 결코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점과 상통한다. 송대 문인들이 선승의 선시보다도 한산시를 선호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산자의 통속시를 보자.

술이 있으면 서로 불러 마시고, 고기 있으면 서로 청해 먹어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황천으로 갈 사람들, 젊어서 모름지기 힘써 일하라.
 아름다운 옥대도 잠시의 영화요, 빛나는 금비녀도 오랜 장식 아니더라.
 장씨네 늙은이 정씨네 노파, 한번 가고 나니 소식이 없구나.⁴⁵⁾

이 시는 두 개의 상대적 개념을 하나로 묶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즉 술과 고기, 늙은이와 젊은이, 권세와 부귀를 교묘하게 나열하다가 돌연 翁과 婆를 등장시켜 내용전개의 대반전과 함께 人生無常이라는 詩意를 제시하며 끝맺고 있다. 비록 黃泉이라는 불교용어가 보이지만 결코 종교적 권계라기보다는 일반적 권계의 의미가 더 농후하게 느껴진다.

《四庫提要》에는 한산자의 통속시에 대해 총괄적 표현으로 ‘信手拈弄’⁴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산시가 시어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매우 능수능란

45) 有酒相招飲, 有肉相呼吃. 黃泉前後人, 少壯須努力. 玉帶暫時華, 金釵非久飾. 張翁與鄭婆, 一去無消息.

46) 《四庫全書總目》卷149, 〈寒山子詩集〉提要.

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한산시의 詩語와 관련해서는 劉克莊이 《後村詩話》에서 “粗言과 細言의 사용이 모두 깊은 통찰력에 바탕하여 정교하고 짜임새가 있다”고 평가하고, 계속해서 “粗言과 細言 등 시어사용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⁴⁷⁾고 주장하였다. 역시 유극장은 한산시의 속어 사용의 적절성을 강력하게 칭찬함과 동시에 俗語 사용의 정당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유극장의 입장은 일정 부분 한산시의 詩語에 대한 송대 시단의 일반적 평가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대 시단에서의 속어사용이 기본적으로는 선종의 영향이지만⁴⁸⁾, 구체적으로는 俗諺을 통해 禪理나 詩意를 표출했던 한산시가 ‘以俗爲雅’의 典範으로서 송대 시단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한산시의 俗諺이 송대 시인들에 의해 종종 인용되었음은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황산곡의 시 〈次韻楊明叔見錢十首〉 중 第八에 보이는 ‘皮毛剝落盡, 唯有眞實在’의 두 귀는 한산시 중 ‘有樹先林生’으로 시작하는 시의 결구인 “皮膚脫落盡, 唯有眞實在”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山谷別集詩注》 卷上에 수록되어있는 〈雜吟〉을 보면,

성 안의 아가씨들, 차고 있는 보배 구슬소리 찰랑찰랑.
 꽃 앞에서 앵무새와 희룡도 하고, 달 아래서 비파도 타고.
 삼월 꽃바람에 실려오는 긴 노래여, 만 사람 보는데 나부끼는 춤 사위.
 이와 같은 것 오래 갈 것인가, 芙蓉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⁴⁹⁾

윗시는 한산시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劉克莊은 황산곡이 한산시를 너무 좋아하여 자주 베끼다보니 다른 사람이 잘못 수록한 것이라고 지적받기도 했다⁵⁰⁾. 그리고 윗 시중 ‘芙蓉不耐寒’의 詩귀는 呂東萊 등 여러 송대 시인들에 의해 차용되고 있다. 또한 陳師道の 시 〈次韻蘇公西湖徒魚三首〉 其三에 있는 ‘折東補西裳作帶’⁵¹⁾는 한산시의 “與道殊懸遠, 折東補西爾”을 차용하여 쓰여졌는데, ‘折東補西

47) “粗言細言皆精詣透徹, 所謂一死生, 齊彭殤者”. 劉克莊, 《後村詩話·續集》卷二.

48) 莫礪鋒, 《論宋詩的以俗爲雅及其文化背景》, 《宋詩論集》, 鳳凰出版社, 2007. p.507.

49) 城中蛾眉女 珂佩響珊珊. 鸚鵡花前弄 琵琶月下彈. 長歌三月響 短舞萬人看. 未必長如此 芙蓉不耐寒.

50) 劉克莊, 《後村詩話·續集》卷二, 北京中華書局, 1983.

51) 陳師道, 《後山詩注》卷三.

裳作帶는 황산곡의 시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시인에 의해 중복적으로 차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張擴의 시 〈詩社近日稍稍復振〉의 “欲求換骨訣，如仰射空箭”은 한산시의 “但看箭射空，須與還墮地”를 차용하였다.

이밖에도 소동파와 구양수 등 송대 명인들에 의해 자주 사용됨으로서 사실상 송대의 유행어처럼 되었던 ‘呵呵’라는 의성어는 소동파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앞에서 소개한 “我見東家女”로 시작하는 한산시의 결구에서 차용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산시가 단순히 송시의 범위를 넘어 송대 문인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寒山詩와 宋詩 議論化-‘以理入詩’

당과 송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이 크게 달라 시의 특징 또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전술한 바 있는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제시한 송시의 3대 특징 중 ‘以文字爲詩’는 唐詩가 감성적이고 운율 중심이었다면 송시는 이성적이고 문장 중심임을 지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의 산문화화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朱自清은 ‘송시에는 議論이 많음’⁵²⁾이 송시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許學夷도 《詩源辨體》에서 ‘사실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고 議論이 통쾌한데, 이러한 시의 散文化(以文爲詩)는 실로 宋人이 처음으로 그 문호를 열었다’⁵³⁾며 시의 의론화를 송시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고 있다.

송시 議論化의 전개과정을 보면, 宋初 梅堯臣과 歐陽修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후 王安石 등을 거치면서 송대 시단의 주요 시풍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들며, 蘇軾과 黃庭堅에 이르러 완성의 단계에 이른다⁵⁴⁾. 한 시대의 문학양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唐詩는 唐代의 산물이고 宋詩는 宋代의 산물이다. 시의 의론화 또는 산문화도 송대의 議論문화가 송대 사대부에 의해 시의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격변기였던 송대의 특수

52) 朱自清, 《經常常談》, 〈詩第十二〉.

53) 韓經大, 《宋代詩歌史論》, 吉林教育出版社, 2006. p.2에서 인용함.

54) 朱靖華, 〈略說宋詩議論化理趣化〉, 《中國人民大學學報》, 第6期, 1994. p.81.

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송시의 특징을 형성시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시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위해서는 송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송나라는 당말 오대의 오랜 균열할거를 마감하고 세워진 문인중심의 국가이다. 정치적으로 문관의 수가 확대되고 관료조직이 방대해졌지만 행정 효율성은 저하되고, 국방력이 취약하여 극심한 내우외환에 처하면서, 개혁을 둘러싸고 의론이 무성해진다. 문화적으로는 유불도의 통합과 관련한 의논이 이어졌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송대에는 의론문화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議論문화는 시문으로 이어져 의론시라는 송시의 새로운 특징이 형성되었다. 작가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문학의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송시의 의론화는 송시의 생동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의론화가 송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의론화는 中唐 韓愈의 '以文爲詩'에서 연원한다고 하나, 韓愈 이전에도 의론시는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당대이전에는 曹操의 〈步出夏西門行〉가 의론시이고 陶淵明의 여러 詩가 그러하며, 唐代 陳子昂의 〈登幽州臺歌〉도 의론시이다. 그리고 송시 의론화의 완성자인 蘇東坡도 멀게는 詩經과 東晉의 陶淵明, 唐代의 李杜를 비롯하여 韓愈 柳宗元 白居易 劉禹錫 등의 문학전통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시풍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송시 의론화의 문학사적 연원을 韓愈로 고정시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한산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산시에서의 의론을 살펴보면, 민중 대상의 勸戒 차원에서 훈계하는 스승처럼 교우관계, 혼인, 자식교육, 미신쫓기, 축재 등 다양한 세상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산시의 의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다. 따라서 한산시에는 我, 吾, 余,가 들어간 시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방식은 송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我와 관련된 시어를 보면, 첫구에 "我見~~人(내가 보건대 ~한 사람은 ~)"

으로 시작하는 시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시는 대체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내 세상사람 보니(我見世間人), 내가 중이 된 사람 보니(我見出家人), 내 미련한 사람 보니(我見凡愚人), 내 날카로이 지혜로운 사람 보니(我見利智人), 내 남을 속이는 놈들 보니(我見瞞人漢), 내 한 어리석은 사내 보니(我見一痴漢) 등이다. 이들 시는 모두 '나'라는 1인칭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나'를 앞에 두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한산자가 강력한 자의식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한산시와 같이 '我'를 사용한 경우는 송시에서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황정건의 시에 6수, 왕안석의 시에 3수가 있다.

이밖에 '我와 관련해서는 '我(今)有', '我行', '我在', '我住' 등을 넣어 쓴 시가 있으며, 그외에 '吾心', '吾家', 그리고 '余勸', '余見', '余家', '余曾' 등이 있는데, 모두 본인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시를 송대의 대표적 시인인 蘇軾과 黃山谷과 王安石의 시에서만 찾더라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我(今)有'의 경우 소식 시에 5수, 황산곡 시에 31수, 왕안석의 시에는 21수가 있고, '我行'의 경우 소식이 84수, 황산곡이 6수, 왕안석시에 23수가 있으며, '我在'의 경우 소식 시에 44수, 황산곡 시에 4수, 왕안석 시에 4수가 있고, '我住'의 경우 소식 시에 9수, 황산곡 시에 3수가 있다.

그리고 吾를 사용한 시 중, '吾心'을 넣어 쓴 시는 소식 시에 21수, 황산곡 시에 2수, 왕안석 시에 28수가 있고, '吾家'가 들어간 시는 소식의 시에 36수, 황산곡 시에 17수, 왕안석 시에 9수가 있다. 이밖에 余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余家'가 들어간 시가 많아 소식 시에 15수, 황산곡 시에 2수가 보인다. 또한 적지만 '余家', '余曾' 등을 넣어 쓴 시도 있다. 이러한 시들은 대체로 자신의 강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의론을 펼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한산시에는 "世有~~人(세상에 ~한 사람이 있거늘)"로 시작하는 시도 적지 않은데, 제3자의 관점에서 세상에 대한 의견을 펼칠 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世有多解人, 世有多事人, 世有一般人, 世有聰明士, 世有一等愚, 世儒一等流 등이다. 여기서 1인칭이 아닌 3인칭의 관점에서 의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도 송시에는 상당히 많아 황정건의 시에 무려 29수, 왕안석의 시에 27수

가 있다.

물론 소식 황산곡 왕안석 등의 이같은 詩作 방식의 연원이 모두 한산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산시의 시작 방식이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송대 의론시가 대체로 송대 정치적 사안을 소재로 진행되었다면, 한산시의 의론은 정치보다는 민중들의 세속적 생활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의론의 전개방식이나 내용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의론시를 쓴 비있는 왕안석은 “文이란 세상에 보탬이 있도록 힘써야할 뿐이다. 辭라는 것은 그릇에 그림을 새기는 것과 같아, 솔직히 기교나 화려함은 굳이 불필요하다.....”⁵⁵⁾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왕안석만이 아닌 송대 시단의 보편적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송대 시단에는 補世의 정신이 농후하였음을 보여준다. 송시에는 補世의 詩도, 이와 무관한 詩도 있지만, 송시가 詩의 社會的 功用性을 지향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詩作의 출발점 자체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권면에 있었던 한산시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송대 의론시가 멀게는 詩經, 가까이는 당대 李杜를 비롯한 唐代 시인의 의론시를 계승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산시가 구체적 실천의 典範으로서 상당한 작용을 하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4.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북송의 개혁정치가이자 대문호였던 王安石의 한산시 模作 배경을 조사하던 중 한산시 모작이 왕안석 뿐 아니라 송대시단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다. 唐代시단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산시가 송대 시단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황산곡 등 많은 송대 명인들의 애송

55) “且所謂文者，務爲有補於世而已矣。所謂辭者，猶器之刻鏤繪也。誠便巧且華，不必適用，誠便且用，亦不必巧且華，要之以適用爲本，以刻鏤繪畫爲之容而已。不適用，非所以爲器也。不爲之容，期亦若是乎？否也。然容亦未可已也。勿先之，其可也。”參閱，王安石，〈上人書〉。

시가 된 것이다. 북송시단에서의 한산시 열풍은 자연스럽게 송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서 송시의 발전과 특징의 형성에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산시와 송시와의 관계에 대한 파악은 송시의 발전과정 및 송시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사적 영향 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작품론 등의 미시적 접근 외에 역사문화의 거시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산시의 지향점과 송시의 지향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송대의 한산자에 대한 관심과 찬양은 亦儒亦僧이었던 한산자 개인의 성격도 주요했지만, 시의 소재를 비롯하여 詩語와 詩風,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속박됨이 없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구축한 한산시아말로 선시의 진정한 본색이라는 황중희의 주장과 같이, 한산시가 추구한 문학적 지향성이 송대시단에서 환영받은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한산시에는 불교를 찬양하는 시도 비판하는 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종이라는 종교적 외투를 벗어던지고 선시의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탈종교적 선시는 고루함에서 벗어나 신선함을 추구했던 송대시단에 선시에 술화의 典範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한산시가 송대시단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원인은 송대시단이 지향했던 문학적 가치가 한산시와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산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고, 통속적이고 평이한 시어를 사용한 표현의 생동성, 또한 詩意의 분명한 제시를 추구하였던 점은 송시가 지향했던 '시의 통속화'와 '시의 의론화'의 구체적 典範이었다. 특히 당대까지 이어진 속어 사용의 금기를 깨는 선행적 시인의 전범으로서 존중되었고, 또한 의론시를 통해 社會的 功用性을 지향했던 송대시단에 한산시는 구체적 실천의 典範으로서 작용하였다. 당송시의 계승과 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⁵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론화와

56) 唐代에 비해 宋代詩壇의 저조 및 宋詩 議論化 등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송대 과거 제도의 변화이다. 唐代는 기본적으로 詩賦를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지만 宋代에는 科擧에서 詩賦 대신 經義와 策論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唐宋 士風이 달라지는 근본적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치를 내세워 과거급제자 수를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당에 비해 송대시단의 활동이 빈약했던 원인에 대해 嚴羽는 송대는 문인의 수는 많았지만 시인은 적었고, 송시는 韻은 있지만, 經義와 策論에 불과하여 시라고도 할 수 없다며 혹평하였다. 參閱, 嚴羽, 《滄浪詩話》, 〈詩辨〉.

통속화라는 송시의 중요한 특성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한산시의 영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국문학사에서 한산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參考文獻》

- 《寒山子詩集》，(四庫全書鈔本)，商務印書館。
《全唐詩》，臺灣：文史哲出版社，1978。
錢學烈，《寒山拾得詩校評》，天津古蹟出版社，1998。
金達鎮譯，《寒山詩》，문학동네，2001。
黃庭堅，《山谷全集》，欽定四庫全書本。
黃庭堅，《山谷外集》，中華書局，2003。
劉克莊，《後村詩話續集》，北京中華書局，1983。
魏慶之，《詩人玉屑》，臺灣：商務印書館，1980。
劉乃昌，《兩宋文化與詩詞發展論略》，山東大學出版社，2005。
莫礪鋒，《唐宋詩歌論集》，鳳凰出版社，2007。
韓輕大，《宋代詩歌史論》，吉林教育出版社，2006。
許 叡，《唐宋詩宏觀結構論》，人民文學出版社，2006。
範希春，《理性之維》，中央民族大學出版社，2006。
孫昌武，《禪思與詩情》，中華書局，2006。
張伯偉，《禪與詩學》，2008。
唐書甸，《劉賓客嘉話錄》，臺北：商務印書館影印文淵閣四庫全書本，1986。
黃永武，《中國詩學》(思想篇)，臺灣：巨流圖書公司，1979。
魏子雲，〈寒山識小錄〉，《中國詩季刊》，4卷 3期，1973. 9。
陸永峰，〈王梵志詩與寒山詩比較研究〉，《四川大學學報》，第1期，1999。
錢學烈，〈寒山詩的流傳與研究〉，《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1998. 3。
朱靖華，〈略說宋詩議論化理趣化〉，《中國人民大學學報》，第6期，1994。
徐立新，〈寒山禪詩的思想及流傳〉，《台州學院學報》，第26卷，第2期，2004. 4。
錢學烈，〈寒山詩的流傳與研究〉，《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1998. 3。
朱靖華，〈略說宋詩議論化理趣化〉，《中國人民大學學報》，第6期，1994。

〈中文提要〉

本文將探討寒山詩與宋詩壇，其主要內容為寒山詩在宋代的評價，以及對宋詩的影響如何。為了研究的方便，本研究應從文化史的研究方法着手，先將探索寒山詩的主要特徵，再觀察在宋代文化環境裡所發生的宋詩的新傾向，而比較寒山詩的特徵與宋詩的新傾向，最後將尋找寒山詩對宋詩的影響範圍。

寒山詩為唐代的白話詩，但其人其詩在唐代幾乎沒有被認知。經過五代而至於宋朝，寒山詩在宋代突然廣範地流行起來，除了禪寺以外，在文人社會也出現所謂寒山詩熱潮，黃庭堅等許多宋代文人喜愛筆記或愛誦，甚至王安石等不少詩人模擬其詩。考其主要原因，宋代詩壇所尋的文學精神可能與寒山詩相接近所致。

宋代而言，結束唐末以來長期的軍閥紊亂政治的時代，標榜文治而建立以文人為中心之政權。並且強力擴大實施科舉而多增加文官人數。在文化思想方面，正進入儒佛道整合而各自發展之際，佛教禪宗顯得備受宋代文人的崇尚，儒家性理學正式出帆。宋代文人喜談禪理，樂嘗禪趣，常寫禪詩。故可言禪宗對宋詩影響極大。但他們願脫離濃厚的宗教色彩而寫平淡純粹的通俗詩。宋代詩壇注目唐代王梵志和寒山拾得的詩，其中最重視寒山詩。因為除了他們對亦儒亦僧的寒山子表示敬意以外，在寒山詩的素材以及詩語等，他們頗為敬愛，寒山詩對宋詩通俗化的影響頗深。

另外，如已上述，宋代正進入儒佛道整合時代，文人之間議論不斷，開了高度議論文化。加上，由於國防的脆弱，始終患於邊防異民族的侵掠，同時社會進入腐化階段，國家正處於困境。為了突破各種困境，王安石等一些文人試圖政治改革，繞著改革爭論不息，以此發生黨爭。在此，宋代詩人用詩展開議論，成為宋詩的重要特徵。議論詩的出現並不是宋代開始，寒山詩本來為民眾啟蒙而寫，許多詩開頭就「我見」「我(今)有」「我行」「我在」「我住」或「余見」「余家」「余曾」「余勸」「吾心」等進行議論，或著用「世有」等來進行議論，可稱為議論詩之先驅。黃庭堅蘇軾王安石等亦常襲用其法而展開議論，可知寒山詩對宋詩議論化的影響甚大。

從上而知，寒山詩為何在宋代深受如此的歡迎。也可知寒山詩在宋詩發展過程上所致的影響。看寒山詩與宋詩的密切關係，寒山詩在中國詩史中的位置重新再定立的餘地。

關鍵詞： 寒山子，寒山詩，禪詩，宋詩，通俗化，議論化

206 中國文化研究 第14輯

이 논문은 2009년 5월 08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